

카자흐스탄정부, 외국인투자자들과의 기체결 계약중 조세관련내용 변경 검토

-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자들과 기체결한 각종 계약 중 조세관련내용의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카자흐스탄 국가이익부 장관 Zeynulla Kakimzhanov는 4월 10일 동국 알마티에서 개최된 Eurasian Economic Forum에서 외국인투자자와의 균형적 관계설정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 계약서에는 바로잡혀야 할 많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Kakimzhanov는 또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과 기체결한 계약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상기와 같은 일부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와 병행해서 계속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함
- 아울러, 동국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호조를 보인 지난 5년간은 이 같은 문제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유전으로부터 종전보다 많은 수익을 향유해야할 시기가 되었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tax code)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덧붙임으로써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이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숨기지 않음
- 당분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 동력원 역할을 지속하여 2002, 03년에도 이나라 경제를 6%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로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하여 적대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던 Tasmagambetov 수상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